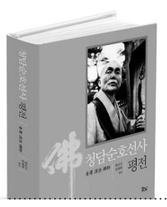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사진 왼쪽부터 세 종교의 수장인 한경직 목사, 청담 스님, 김수환 추기경 등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평전으로 되살린 한국불교 거목 청담 스님



청담순호선사 평전

방남수, 임병화 편저 | 화남 펴냄 | 3만 5천원

한국불교 정화운동 주역
대한불교조계종 기틀 마련

'마음사상' 여러 각도서 탐구
새롭게 조명한 부분도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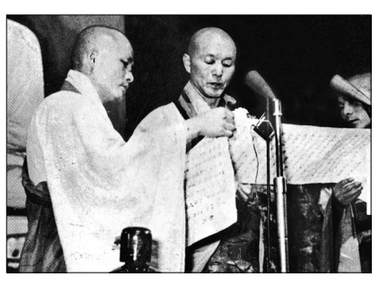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의 터전을 닦은 청담 순호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사는 물론 불교사를 이끈 선지식이다. 기나긴 일제 강점기로 불교계는 물론 민중들 마음 세계까지 피폐해진 상황에서,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민중의 길잡이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

〈청담순호선사 평전〉은 이런 청담순호 대종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책이다. 동방문화대학원대서 청담 대종사의 사상세계를 연구한 방남수, 임병화 두 사람의 공저로 선을 보였다. 청담 대종사 출생서 시작해 수행 과정, 불교계를 정화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을 일으켜 세우기까지의 과정, 포교와 교육 활동에 헌신한 삶의 면면과 사상 철학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청담순호 대종사는 조선의 운명이 기울던 1902년 경남 진주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부터 불법에 뜻을 두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며 출가 했지만, 당시 우리 불교계는 민중을 이끌고 보듬어 줄 역량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승려들이 부인과 자식을 두고 재물을 모으며 술과 고기를 먹는 등 계율을 지키지 않는 대처승(帶妻僧)들이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사찰들도 일제의 탄압으로 쇠락하거나 대처승들의 손에 들어갔다.

청담 대종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승려들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석가모니가 설법한 그대로 계율을 지키고, 참선과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닦으며, 깨달음을 얻어야만 중생들에게도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여겼다. 당대의 선지식인 만공 선사 밑에서 끝없는 정진과 참선을 통해 견성(見性)한 청담 대종사는 기나긴 불교정화 운동에 뛰어든다.

대종사는 정화에 뜻을 함께하는 승려들과 힘을 모아 청정승가를 계승하고 정통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처승들과의 투쟁은 길고 모질게 이어졌다. 법정 공방이 계속됐으며, 의지를 보인 스님들의 단식과 할복까지 벌어졌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교단을 바로잡고, 젊은 승려들을 새로이 교육하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설립을 통해 우리 불교가 한국 선불교의 명맥을 잇게 된 것이다.

〈청담순호선사 평전〉은 당시의 기록, 청담 대종사의 후학들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생생히 되살려냈다. 청담 대종사의 삶과 행적을 따라가면서,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빠짐없이 거칠 뿐 아니라 한국 불교 사상의 원류까지 찾아들어간다. 해방 전후 불교정화를 결의하고 실행해나간 과정, 무장한 북한군을 설법으로 물러가게 한 일화, 불교개혁에 반발한 대처승들과의 끝없는 투쟁 등은 읽을수록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꼿꼿한 성정이면서도 화내는 법이 없어 인욕(忍辱)보살로 불린 풍모도 제자들의 술회를 통해 되살아난다. 10. 26 법난, 조계사 땅 문제 등 군부정권의 탄압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근현대사 속 진실들 역시 실증과 함께 뚜렷이 밝혀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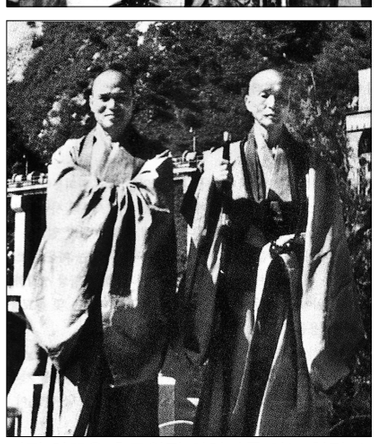


사진 위쪽은 총무원장 취임사를 하는 청담 스님 모습. 아래는 성철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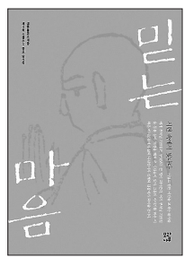
워낙 걸출한 행동가인 탓에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청담 대종사의 사상가적 측면 역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싯다르타를 시작으로 달마 대사, 원효 대사 등을 거쳐온 선불교의 명맥이 어떻게 청담 대종사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어졌는지를 차근차근 밟아나간다. 특히 청담 대종사 불교관의 핵심인 '마음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했다.

청담 대종사는 두 번 나오기 힘든 활동가였다. 경전 간행과 포교 사업, 교육사업과 복지 사업, 불교 언론 설립 등 수많은 분야서 비전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시대를 앞서간 선견지명과 확고한 신념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행동이란 글이나 말과 달리 종이에 쓰여 남지 않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후대의 노력이 중요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청담 대종사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은 청담 대종사 제자들의 회고 인터뷰, 명사들과의 대담, 스님의 사상 세계를 다룬 논문 등 현재 남아 있는 스님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망라하고 있다. 부록에는 청담 대종사의 저서는 물론 스님에 대해서 다룬 책, 기사, 기타 관련자료 리스트도 빼곡하게 실었다. 일반 독자와 연구자를 막론하고 청담 대종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책이다.

특히 이번 책에서 두 저자는 꼼꼼한 취재를 통해 △'마음 법문'을 듣고 발심 출가하기까지의 인연 △청담이란 법호를 쓴 연유 △청담 스님이 불교정화에 진력한 이유 △불교정화에 대한 의지 △육영수 여사와의 인연담 △도선사 중창불사에 대한 오해 △청담스님 교육 불사의 정체성 △봉은사 토지매각에 대한 오해 △입적에 얽힌 의문 등을 새롭게 조명해 눈길을 끈다.

곁에서 모신 제자인 혜성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서 청담 대종사의 위치는 확고하다. 스님은 불교정화 운동의 주역이자 인욕보살로 칭해지는 선지식이셨다."고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믿는 마음

법보신문 편집국 지음
모과나무 펴냄
1만 3천원

절망과 시련 속에서 길어 올린 깨달음

〈믿는 마음〉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법보신문, 불교방송이 진행한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을 엮은 세 번째 책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치유의 마음을 나누는 신행수기 공모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인 신행 마당이다.

이 책은 장애가 있는 딸을 낳고 키우면서 엄마로서 느꼈던 좌절과 슬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모성을 넘어 중생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보여준 이야기를 시작으로 청소년기에 어긋난 길을 걷던 중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청년, 한 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반목하다가 수행과 참회의 절로 서로 화해한 세 자매의 이야기, 눈물겹도록 생생하고 치열한 포교 신행의 과정을 담은 어느 포교사의 수행담 등 자기 고백과 수행의 과정을 담았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의 순간은 더욱 빛난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행수기는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행복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제 2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는 머리글서 "신행수기는 문장력이 좋고 작품성이 뛰어나고 해서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은 글 속에 담긴 신심과 진실된 마음과 아름답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들"이라며 신행수기 평가 기준을 말했다.

절망과 시련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이야기는 바로 불자들의 기도와 신심을 담은 수행의 여정이며, 이것이 곧 불교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행수기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포교 콘텐츠'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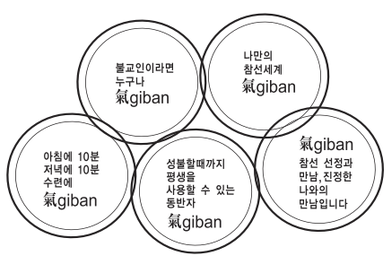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